

서금, 『사조선록 역주1』 김한규 역, 소명, 2012.

제21권 하인

- 여러 蠻夷의 나라들은 조제하고, 교지하며 피발하고 문신한다하고, 승냥이나 이리와 같이 살고 큰 사슴이나 사슴과 같이 노닌다고 하니, 어떻게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는 두는 법을 알겠는가. 오직 고려만은 그렇지 않으니, 의관과 예의, 군신과 상하관계에 분명한 법도가 있어 그에 따라 서로 관계한다.
- 안(중앙)에는 臺와 省, 院, 監 등을 설치하고, 밖(지방)에는 州와 府, 郡, 縣 등을 설치하여 관직을 두어 직무를 나누고, 관리를 뽑아서 일을 맡겼다.
- 그 나라의 관리들은 길에서 만나면 반드시 무릎을 꿇어 절하거나 몸을 굽혀 공손히 대한다.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무릎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손을 들어 올리고 얼굴은 낮추면서 이를 듣고 받으니, 오래도록 聖化(성화)에 교화되지 않았다면 이처럼 될 수 있었겠는가.
- 관직 별 소개: 주로 예복과 임무에 대한 설명.

*산원(散員): (송의) 사신이 갈 때마다, 소반을 받들고 술잔을 올리며 옷을 받아들고 수건을 대령하는 등의 일에 모두 이들을 쓴다.

*정리(丁吏): 그들이 평소 일을 할 때에는 무늬 있는 비단으로 만든 두건을 쓰지만, (송의) 사신이 오면 책(幘)을 더 얹어 쓴다.

*방자(房子): 잡역 담당자. 법을 지키는 태도를 보면 조심스럽기가 그지없고, 공문서도 잘 쓴다. 예를 마치고 객관을 나갈 때 몇 줄기 눈물도 흘린다. 고려 사람들은 대개 중국에 대한 정이 아주 두터워서 방자까지 진심을 다해 섭섭해 한다.

제22권 갖가지 풍속

- 고려는 여러 이적의 나라들 가운데서도 문물과 예의의 나라로 불리고 있다. 그들은 먹고 마실 때 조두(俎豆)를 사용하고, 문자는 해서(楷書)와 예서(隸書)를 모두 쓰며, 주고받을 때는 절하거나 꿇어 앉으니, 그 공손하고 정중하며 삼가고 성실한 태도는 칭찬할 만하다.¹⁾
- 그러나 실제로는 더럽고 비루하며 경박하고 천한 이적의 풍속이 뒤섞여 있어 끝내 바꾸지 못하고 있다. (주로 관혼상제에 이적의 풍습)
- 햇불, 향음 등 여러 풍속 묘사.

*처리(治事): 고려의 정치는 간편한 것을 중시해서, 소송 문서를 글로 기록하지 않고 지시하여 명령할 뿐이다 ... 단지 국조(國朝)의 명이나 사신의 글은 왕부의 창고에 소중하게 간수해서 법식(=본)을 갖추는 도구로 삼는다. 음식을 올리거나 손씻는

1) 俎豆는 고대 중국인들이 사용한 도마와 그릇. 예 문화의 상징 가운데 하나.

그릇을 받을 때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으로 꿇고 가며 손을 높이 받들어 올리니, 그 규율에 맞는 기거동작이 아주 공손하다. 이적이면서도 이룰 수 있으니 가당한 일이다.

*답례(答禮): 재상이나 시종관이 자기가 관할하는 사람과 오가다가 만나게 되면, 반드시 몸가짐을 가다듬고 일어선다. 다른 관리들도 자기가 관할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서리나 병졸들이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길거리에서든 궁정 안에서든 반드시 절하는데, (그렇게 하면)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머리를 숙인 뒤에서 들어서 (상대의) 절에 답하는 것처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경의를 표했는데도 답례가 없으면 (제대로) 경의를 표했는지 반성해보라”

제23권 갖가지 풍속 2

- 목욕, 빨래, 농사, 고기잡이, 나무하기, 새겨서 기록하기, 가축도살, 죽을 베푸는 일, 토산물

제24권 사절의 의장

- 『春秋』의 필법에서는 王人²⁾은 비록 그 신분이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서열을 제후(諸侯)보다 높게 하였으며, 이는 왕(=천자)의 명령을 존중하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주 왕실의 기강이 무너지고 제후는 강대하여 주 왕실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빈 말에 의탁해서라도 천하의 후세 신하된 자들이 본받도록 꼭진하게 가르침이 이와 같았다.
- 하물며 태평성세에 친히 왕인을 멀리 외국에 사신으로 보냈으니, 저들이 (왕인을) 존중하고 받드는 예의를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 삼가 생각해 보건대. 송이 천하를 다스린 지 2백 년이 되어, 전쟁은 점차 그쳐지고, 이적의 군장은 황제의 명령과 통고를 기다리지도 않고도 믿고 따르니, 그 정성은 금석과 같이 견고하다.
- 제후가 왕인을 받들어 존중하고 그 禮文(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이 번거롭고 화려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년에 使命이 고려국에 이를 때마다 화려한 의장과 수많은 호위 병력을 죄다 갖추어 0晝를 맞이하고 모절(旄節, 사신이 가지고 다니던 물건)을 인도함에 그 예의가 매우 정성스럽고 지극하다고 들었지만, 이번 행차는 마침 王侯의 복제(服制)가 아직 끝나지 않은 때여서 복이나 피리 같은 종류는 모두 잡고만 있고 연주하지는 않았으니, 이 또한 예의를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맨 앞에는 신기대: 신주(서금 일행이 타고 온 배)가 예성항(禮成港)³⁾에 다다라 닳을 내리면 고려인들이 채색한 배를 타고 와서 맞이한다. 사자로부터 조선을 받들어 안치한다. 그 다음날 새벽 도할관(都轄官)과 제할관(提割官)이 조서를 마주

2) 천자의 신하, 천자가 보낸 사람. 여기서의 왕은 주대의 왕, 즉 천자를 가리킨다(戰國 후기 이후의 諸侯王 개념이 아님)

3) 예성강 연안의 항구로, 고려국도 개성의 문호(門戶)로서, 송과의 교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받들고 채색 가마 안으로 들어가면 의장대가 앞에서 인도한다. 여러 의장 가운데 신기(神旗)가 맨 앞에 서는데 서교정(西郊亭)부터 관사 앞에 미리 세워 두고 조서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른 의장과 만나 인도하고 호위하며 성으로 들어간다. 조서를 받고 표문을 올리는 의식은 언제나 의장대 앞에서 거행한다. 푸른 옷을 입은 용호군(龍虎軍)은 갑옷을 입고 창을 들었는데, 거의 만여 명에 이르는 군졸들이 두줄로 나누어 길을 끼고 행진한다.

*그 다음에는 기병

*기병 다음에는 명가군(피리를 부는 의장대), 요고군(징과 북을 치는 의장대)

*그 다음은 천우위가 의장 물품(貫革 등)장을 잡고 행진

*천우위의 뒤는 금오위가 황색 깃발, 표범 꼬리, 의식용 창, 화려한 가리개 등을 가지고 행진

*그 다음은 각종 놀이를 공연하는 백희소아가 뒤따름.

*그 다음은 악부(왕후의 상이 있었기 때문에 연주는 하지 않고 악기를 잡고 있기만 했다. 특별히 0命을 받는 행사였기 때문에 베풀어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그 다음은 예물. 예물 상자의 표면에는 하사하는 물품의 이름을 적고, 황제의 옥새를 찍어 봉인되어 있다. 고려인은 황제의 총애를 존중하고 받들어 이를 가마에 싣고 황색 보로 덮는다. 예복을 갖춘 공학군(控鶴軍) 가마를 든다.

*그 다음 조여(조서를 싫은 수레). 맨 앞의 가마에 큰 금향로, 다음 가마에 조서와 왕후의 제문이 봉안, 그 다음 가마에 어서(御書)가 봉안되어 있고, 공학군이 이들 가마도 든다.

*그 다음은 총대하절(황명을 받든 송의 사절)이 따르고

*이어 선무하절(주로 토병으로 구성된 송의 군사)이 따른다.

*그 다음은 정사와 부사: 國信使(송대오 원대 국가의 사신)와 부사(副使)

*이어 상절(上節)

*맨 마지막에 중절(中節)

제25권 조서 수령

- 周가 재공을 사자로 보내어 제후(齊侯)에게 제 지낸 음복 고기를 내려주었다. (이에 제후가 뜰로)내려가 절하러 하자 孔(공자?)가 말하기를 “또 뒤따르는 왕명이 있다. 천자께서는 백구(伯舅)⁴⁾께서 연로하심을 위로하시기 위해 작(爵) 한급을 내려주셨으니, 내려가서 절하지 마시라”고 하였다. (제후가) 대답하기를 “천자의 위엄이 얼굴에서 지척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 저 소백(小白)이 감히 천자의 명을 탐하여 (예법을) 밑으로 무너뜨려 천자께 수모를 끼치게 될까 두렵다. 어찌 감히 내려가서 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내려가 절한 다음에 올라가서 (고기를) 받았다.
- 지금 천자의 위엄과 신령함이 이적에까지 미쳐져서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지만, 이적을 편안히 하여 따르게 하려는 뜻이 실질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모두 두텁고 아름답다. 이로 인해 고려인들은 마땅히 하늘을 우러러 보듯 밝은 황명을 삼가 받들어, 감히 조금이라도 게을리 하여 예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경계한다.

4) 천자가 성이 다른(異姓) 제후를 높여 이르던 말.

*조서 영접: 정사와 부사가 조서를 받들고 순천관(順天館)으로 들어가면 길일을 점쳐서 왕이 조서를 받게 된다. 조서가 이동하는 데 도할관, 제할관, 상절, 중절 등이 항상 예를 다하여 호위하였다.

*조서 인도: 조서가 있는 가마가 도착하면 국왕이 문 아래로 내려와 서쪽을 향해 서고 정사와 부사가 국왕과 나란히 가면서 中門으로 인도해 들어갔다. 상절과 예물관은 회경전 아래로 들어가 국왕이 조서를 받기를 기다렸다.

*조서 접수: 국왕은 조서를 인도하여 회경전으로 들어가 궁정 아래에 향안(향로와 축대 등을 올려놓는 탁자)을 차려놓고 서쪽을 향해 서고, 정사와 부사는 북쪽 위에 자리잡고 남쪽을 향해 섰으며, 상절관은 서열에 따라 정사와 부사의 뒤에 섰고, 그 나라의 관리들은 왕의 뒤에 반차에 따라 섰다. -> 왕이 두 번 절한 뒤에 직접 성체(聖體)에 대해 문안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 국신들도 무도(신하가 조정에서 천자를 알현할 때 행하는 예절)와 재배(두번 하는 절, 극도의 공경 의미)를 왕이 한 의례와 같이 했다 -> 국신사가 조칙이 있다고 이르자 국왕이 두 번 절하고 일어나 구두로 전하는 조칙을 직접 들은 뒤에 홀(笏, 제후를 봉할 때 의식에 쓰던)을 꽂고 꿇어 앉았다. -> 부사가 조서를 정사에게 주고, 정사는 조서를 왕에게 주었다. -> 왕은 조서를 관리에게 주고, 홀을 꺼내서 찹추었고, 그 나라 관리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

*제사: 정사와 부사가 국신사의 일로 행차하게 되었는데, 왕후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제전(祭奠, 제사)과 조위(弔慰, 애도, 유족 위로)를 겸하게 되었음. 제전 시에는 정사가 꿇어 앉아 황제가 직접 지은 제문을 읽었다. / 제전의 예를 마친 후에는 조문과 위로의 예를 행하였다. 왕은 소복을 입고 서쪽을 향해 서고, 정사는 남쪽을 향해 서쪽 윗자리에 섰으며, 부사는 그 다음 자리에 섰다. 부사가 조서를 정사에게 주고, 정사가 조서를 왕에게 주자, 왕이 경석 모양으로 허리를 굽혀 공손스럽게 두 번 절하고, 꿇어 앉아 조서를 받았다.

제26권 연회 의례

- 저들이 사신에게 더 후하게 대한 것은 王人(황제가 보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나라에서 하는 것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다)

*사적 알현: 왕과 정사가 서로 마주보며 두 번씩 절한 뒤에, 각각 몸을 조금 앞으로 내어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고 나서, 다시 두 번 절하였다. 정사가 물러나고, 부사가 정사의 자리에 서서 왕과 마주보며 처음 행한 예와 같이 절하고 각각 자리로 돌아갔다. 상절관들은 방자를 통하여 참여하였고, 도할관과 제할관 이하는 절하지 않고 몸을 굽혀 왕에게 읍하였고, 왕도 이에 몸을 굽혀 답하였다. ... 모든 관직이 절을 하 다고 난 뒤 술이 돌았다. 술을 권하여 잔을 주고받는 예법을 따랐다.

*헌수(술을 권하여 잔을 주고받고 하는 예): 왕이 개(介)를 보내어 저사와 부사에게 직접 일어나 술을 따라 권하고 싶다고 알린다. -> 사자는 두 세차례 사양하

고 그 뜻을 따른다. -> 각각 자리를 피해 일어서서 마주보며 읊한다 -> 집사자(국가의식을 집행하는 관리)가 정사의 술잔을 가지고 왕앞에 가면 왕은 꿇어 앉아 술병을 들어 술을 따른다 -> 정사는 꿇은 채 술잔을 받는다 -> 정사가 마시고 난 술잔을 집사자에 주고 각각 자리로 돌아간다 -> 술을 마신 뒤 몸을 일으키고 마주보고 읊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정사, 부사 이하로 가면서 15차례가 돌면 중간 휴식을 하고 난 후 다시 아랫사람들에게 술을 권한다. 이는 밤중이 되어서야 파하고, 왕은 정사와 부사가 궁전 문밖으로 나갈 때까지 전송하였다.

*상절/중절/하절의 자리: 상절은 서쪽을 향했는데, 그 중에서도 북쪽이 상석 / 중절의 자리는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중 북쪽이 상석 / 하절의 자리는 궁전 문의 안쪽이었고, 북쪽을 향하였고, 그 중 동쪽이 상석이었다.

*표문의 바침: 왕이 점으로 좋은 날을 가려서 표장(表章)⁵⁾을 바침. 천자에게 바치는 방식은 조서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송 황제가 있는 대궐을 바라보며 두 번 절을 한 다음, 흠을 꿇고 꿇어 앉았고, 집사가 표문을 왕에게 주자, 왕이 받들어 무릎을 꿇은 채로 가서 정사에게 주었고, 정사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았다.

*전별식: 표문 의식 후의 연회가 끝난 뒤에 신봉문에 장막을 치고 손님과 주인의 자리를 배설하였다. 왕이 정사와 부사에게 이별주를 따라준다. 그리곤 좌석 옆에 서서 상절 이하의 사신들을 인도하여 왕의 이별주를 받게 한다.

*환송: 서교정에 다다랐을 때 왕은 국상을 보내 그 안에 술과 안주를 갖추게 하였다. 정사, 부사와 관반(송의 관원) 사이 술이 돌았다. 이후 사절단이 객관에서 귀로에 오르게 되면 군산도에서 큰 바다로 나갈 때까지 동행하였다.

제27권 관사

- “문공이 맹주(춘추시대 패자)가 되었을 때는 궁실이 나지막하고 누각이나 돈대, 정자 같은 것이 없었지만, 제후의 관사는 높고 크게 지어, 그 관사가 공의 침전 같았으며, 창고와 마구간을 수리해서 수레와 말을 둘 수 있게 하고 손님용 하인을 따로 두어 시종들게 하니, 손님이 오면 미치 (집으로) 돌아온 듯하였다.”
- 제후의 나라가 사방의 빈객을 접대 할 때도 관사를 마련해 주는 일을 먼저 해야 할 일로 삼았거늘, 하물며 외이, 번복이 王을 접대하는 일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생각건데, 고려인은 평소에도 공손하고, 온순하였고, 조정도 (고려를) 대할 때 체통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사자 관사의 격식은 왕의 거처보다도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면이 있다.

제28권-제29권 임시처소의 비품

- 周 대의 관직인 장차는 왕의 임시 처소에 관한 법도를 관장하여 장막 치는 일을 맡았으니, 제후가 천자를 알현하거나, 제후가 모여 천자를 알현할 때는 크고 작은 장막을 쳤고, 전장

5)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 여기서는 고려 국왕이 송황제에게 보내는 글을 말한다.

에 나가 사냥할 때에도 장막을 치고 상을 차려놓았다.

- 하물며 해외(이적)에 있는 작은 제후가 王人을 존중하여 받들기 위해 장막을 치고 설비를 갖추는 데 어떻게 구차하게 할 수 있겠는가.
- 고려는 왕씨 이래로 대대로 本朝(송)의 번병(藩屏)⁶⁾이 되었고, 主上(현재의 황제)이 고려를 진정시키고 위무할 때 그 은혜와 덕택이 매우 두터웠기 때문에 사절이 그곳에 갈 때마다 임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친 장막의 설비가 극히 화려하고 찬란했다. 은택이 사해(四海)⁷⁾에 미침을 노래한 『육소』의 시에서 “가죽 고삐를 늘어뜨리고, 수레 방울을 울려 화락한다”. 의례에 쓰이는 물품이 예에 맞는, 사자를 공손하게 접대하는 것으로윗사람을 대접하려는 마음에 대한 부분.
- 염색 장막, 수 놓은 장막, 그림, 걸상, 연회용 상, 등춌대, 소반, 침상, 무늬 돛자리, 문 가리개 휘장, 수 놓은 베개, 잠옷, 모시치마 등 모시 옷, 그림 부채, 각종 부채 등을 묘사하고 있다.

제30권-제32권 음식물을 담는 그릇붙이

- 음식을 담는 그릇들의 형상을 箕子의 아름다운 교화에 물들어서 삼대(三代, 하은주 시대)의 유풍(遺風)과 비슷해진 것이다.
- 향로, 물병, 술잔, 술통, 대야, 약병, 꽃병, 보온병, 물 향아리, 난로, 찻상, 광주리, 가마니, 칼과 붓 등을 묘사하고 있다.

제33권 배

- 고려인은 바다 밖에서 나고 자라서 움직였다 하면 큰 물결을 건너야 하니 배를 중시하는데, 간략하게 만들어서 그다지 정교하거나 치밀하지는 않다.

*순라선: 가운데 돛대 하나를 세울 뿐, 위에는 누각이 없고, 노와 키를 두고 있다. 사자가 군산도에 들어갔을 때 문에는 이 순라선이 10여척 있었고, 모두 깃발을 꽂고 있었고, 뱃사람과 나졸들은 청색 옷을 입고 뿔피리를 울리고 징을 치며 왔다. 고려의 경영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영접과 전별이 군산도에서 이뤄졌는데, 신주(神舟)가 대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

*관용배, 소나무배: 장막 설치, 식사 및 식수 대접 등 사절단이 들어오는 바닷가에서 접대를 하는 도구로써의 배

6) 제후국은 천하의 울타리 같은 국가라고 해서 번국(藩國)이라고 한다.

7) 천하세계를 가리키는 말, 중국의 사방 밖의 이적 즉 四夷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

제34권-제35권 바닷길

- 밀물과 썰물의 강약, 시기, 산과 섬의 형세를 설명.
- 특히 사절단이 신주(神舟)가 지나간 바닷길, 섬, 산 등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음.

*신주(神舟): 황제의 명으로 고려에 사자를 보낼 때 사용하고자 건조했던 함선. 높고 웅장함이 산악과 같았다. 물결위를 떠 갈 때, 비단으로 만든 돛과 익조의 머리가 조각된 뱃머리는 교룡을 굴복시킬 만해서, 황화(皇華=천자)의 위세를 밝게 드날리고 이적이 떨어 두려워하게 하였으니, 실로 고금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배였다. 따라서 고려인이 조서를 맞이한 날 온 나라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환호하고 감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객주(客舟): 계급에 따라 사절단의 일부도 탔고, 물건과 무기 등을 싣는 배.